

“뷰 맛집’ 창작교육관에서 드로잉도 관람·체험하세요”

영암군립하정응미술관, 창작교육관 유희공간 재구성

‘이달의 드로잉’ 프로그램 진행...색다른 볼거리 제공

영암군립하정응미술관이 창작교육관 유희 공간을 새로운 관람과 체험의 공간으로 재구성해 개방했다.

창작교육관 뮤지엄샵에 ‘이달의 드로잉’ 프로그램을 마련해 명화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재정비한 것.

이달의 드로잉은 동강 하정응 선생이 기증한 작품 중, 달마다 한 작품을 골라 도안을 만들고, 다양한 재료들을 비치해 관람객이 자유롭게 색칠할 수 있도록 한 개방형 체험

프로그램이다.

12월 게시 작품은 전통문화의 여러 요소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한국인의 근원적 정서를 드러낸 오승윤 작가의 ‘오방색’이다.

부드러운 곡선으로 표현된 산과 그 속에는 새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동화적 풍경의 풍수시리즈로, 오방색의 강렬함과 조화로움이 매력적인 작품이다.

프로그램이 열리는 창작교육관은 군서면

구림전을 사이로 미술관과 접하고 있다.

창작교육관 뮤지엄샵 통창으로 보이는 미술관 풍경은, 이미 지역민에게는 속칭 ‘뷰 맛집’으로 소문이 나 있다.

여기에 새로운 드로잉 프로그램까지 더해져 관람객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해줄 것으로 미술관 관계자는 기대하고 있다.

영암군립하정응미술관 관계자는 “드로잉 프로그램 이외에도 관람객이 쉽게 미술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자리를 마련하겠다. 미술관을 작품 감상뿐만 아니라 여유시간을 편하게 보내는 휴식과 종전의 공간으로 생각하고 많이 방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암=조대호기자



“어린이들의 밝은 미래, 신안군이 함께해요”

취학 전 아동 무료 안과 질환 정밀검진으로 조기 발견 치료 시행



신안군은 12월 1일 지도읍 읍내리 문화센터에서 지도, 증도, 임자 지역의 취학 전 어린이 48명을 대상으로 무료 눈 정밀검진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신안=이덕주기자

한국실명예방재단과 함께하는 이번 검진은 취학 전 아동의 눈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적기 치료를 통한 시각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안군 보건소의 사전 수요조사 후 이루어졌다.

검진에는 소아안과 전문의로팀이 방편해 시력 검사, 조절마비 굴절검사, 약시·사시 검사 등 소아안과 전문의 정밀검진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검진 결과는 각 가정으로 발송하며, 이상소견이 있는 아동은 한국실명예방재단에 연계하여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에는 수술비와 안경비 지원, △약시는 가림 패치 지원 등 조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하게 된다.

신안군 보건소 관계자는 “눈은 성장하는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창으로 건강한 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라며, “아이들이 건강한 눈으로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신안군은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한 사업들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신안=이덕주기자

함평군, 영상기록 특별전 ‘기록으로 본 함평’ 개최

함평군이 사진, 영상 등 시청각기록물과 AI를 접목시킨 영상기록 특별전 ‘기록으로 본 함평’을 개최한다.

1일 함평군은 “오는 12월 4일부터 15일까지 함평군청 본청 2층 현관에서 축제, 민간기록, 행정기록 등 3가지 테마로 영상기록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함평군 기록관이 그동안 모아온 수집 기록물과 군민 기탁기록물을 사진, 영상 등 미디어 형태의 전시를 통해 기록물 관리 공감대를 확산하고 함평군 행정 역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마련됐다.

특별전 3테마의 주제는 ▲제1테마 축제, 대한민국 표준을 제시하다 ▲제2테마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선물 엄마의 일기 ▲제3테마 함평

기록, 우리가 만들어가요이다.

군은 각 테마별로 나비 축제 및 국향대전 등 옛 축제 영상은 물론 옛 함평 모습 등 함평을 추억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을 AI를 통해 세밀하게 구성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 2022년 3월 군단위 중 유일하게 국가기록원 맞춤형 복원복제 서비스에 선정된 군민 기탁 민간기록물 1954년~1962년 육아일기 216매의 복원이 완료돼 대중에 처음 공개된다.

1950년대 작성된 육아일기는 당시 읍내 모습, 옛 함평면사무소, 함평극장 사진, 함평행케도 승강장 등 지역의 역사를 유추할 수 있는 귀중한 사진들이 담겨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함평=김광훈기자

영광군, 전국 사료작물 품질경영대회 늘푸른영농조합법인 우수상 수상

전국 지자체 54개 경영체 중 2위...동계사료작물 중 1위 입상

영광군은 국내산 우수한 조사료를 홍보하고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개최된 2023년 전국 사료작물 품질경영대회에서 백수의 늘푸른영농조합법인(대표 박종화)이 전체 2위에 해당하는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료작물 품질경영대회는 농림축산식

품부에서 주최하여 전국 지자체에서 추천받은 54개 경영체에서 생산한 국내산 조사료를 대상으로 1차 성분 분석 평가를 거쳐 2차 품질평가위원회에서 상위 9점을 선정했다.

늘푸른영농조합법인이 출품한 이탈리아라 이그라스(IRG)는 조단백질 및 유기산 함량이

높고 냄새, 촉감, 색깔, 이물질 등 다양한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사료가치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영광군 관계자는 “우리 군의 동계사료작물(IRG)이 전국 최고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료의 우수성을 입증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품질 조사료 생산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광=서희연기자

무안군, 불무공원에 8m 높이 대형트리 점등

무안군은 12월 1일 연말연시를 맞아 무안읍 불무공원에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희망의 불빛, 8m 높이의 대형트리 점등으로 아름다운 겨울밤을 선물했다.

불무공원에 설치된 대형트리는 색색의 조명과 산타할아버지가 가져온 풍성한 선물 상자들로 구성되어, 불무공원을 오가는 군민들에게 따뜻한 온기와 희망을 전할 예정이다.

이날 점등식에 참석한 김산 무안군수는 “군민 모두가, 밝게 빛나는 크리스마스트리를 보며, 훈훈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민 모두가, 밝게 빛나는 크리스마스트리를 보며, 훈훈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무안=이기성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